

物質特許 對策委員會 구성 所管部處別 綜合補完對 등 마련

政府는 物質特許導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物質特許 綜合對策委員會를 구성하는 한편 所管부처별로 綜合補完 對策을 적극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商工部第2次官補를 委員長으로 하고 經濟企劃院 保社部 科技處 등 相關부처의 국장급을 委員으로 하는 物質特許綜合對策委員會는 相關업계의 건의사항을 중합검토하고 相關부처간 원할한 의견조정을 거쳐 物質特許導入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相關산업이 다업종으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 所管부처별로 綜合補完對策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科技處는 오는 87년 하반기까지 95억원의 예산을 투입, 年5천~7천종의 합성화학물질을 시험할 수 있는 新物質研究開發 등 활성화 獨성시험센터를 化學연구소내에 設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商工部는 40억원을 투입해 國內의 新物質技術 소개 및 物質特許 相關제품 市場에 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市場정보센터를 設립할 計

획이다.

財務部에서는 원료·중간원료·완제품의 구분에 따른 탄력적인 關稅제도를 運用하고 벤처캐피탈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保社部와 農水産部에서는 생산 및 유통체제를 정비하는 역

을할 말게된다.

한편 새로 구성된 物質特許 綜合對策委員會는 年2回 定期會議을 개최, 相關부처간 업무협의를 및 조정을 하게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物質特許民間協議會 委員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韓國知的所有權學會 創立 特許 등 6 個分科委로 構成

우리나라에도 知的所有權學會가 創立되었다.

지난 1월 25일 서울辯護士會館에서 創立된 韓國知的所有權學會에서는 初代會長에 宋相現 서울大 교수가 선임되었다.

이 學會는 순수한 研究團體로 평소 知的所有權 分野에 관심이 많은 辯護士·辨理士·大學교수 등 50여명으로 구성되었

는데 앞으로 定期的인 研究發表와 함께 外國知的所有權學會와의 각종 情報·資料 및 研究論文의 교환등을 통하여 知的所有權 分野의 研究를 體系化함과 함께 各 大學에 知的所有權 講座도 開設하기로 했다.

연락처 : 姜영수 변리사 사무실(전화 555-4421)

第23回 辨理士시험 日程確定 大韓辨理士會서 원서교부 및 접수

第23回 辨理士시험 日程이 確定 公告되었다. 特許廳이 確定 公告한 第23回辨理士 시험 施行計劃公告에 따르면 第1次 시험은 오는 7월 5~6日, 第2次 시험은 9월 2日, 第3次 시험은 10월 14日에 實施하며, 5월

20日부터 31日까지 大韓辨理士會에서 원서교부 및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것은 特許廳 指導課(568-8150)나 大韓辨理士會(568-8517)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保健院에 스크리닝센터 設立 6월에 1백억 入 의약품 效能검사 맡아

政府는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에 따른 대책으로 새로운 의약품등의 效能검색 업무를 담당하게 될 스크리닝센터(신물질 검색소)를 年內에 設立, 新物質開發을 위한 基盤을 마련키로 했다.

새로 設立될 스크리닝센터는 건축비 50억원, 시험연구장비 50억원등 모두 1백억원을들여 今年 6月中 國立保健院 內에 設立할 예정이며 今年내로 센터를 완공, 來年부터는 본격적

으로 의약품등의 效能검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스크리닝센터의 設立은 物質特許制度의 國內導入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기술수준과 연구개발 능력은 선진기술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어 物質特許制度導入에 대비, 新物質創出등 신약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제약社 「研究所 設立」 러시 一洋 · 第一 · 三省 · 柳柳 · 富光등

製藥業界에 研究所 設立붐이 일고있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등을 정한 업체는 없으나 中央研究所를 보유하지 않은 中上位圈의 업체들이 研究所設立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研究所 設立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研究所 設立計劃을 세웠거나 추진중인 업체는 一洋藥品 · 第一藥品 · 三省製藥 · 한일藥品 · 日盛新藥 · 富光藥品 · 三一製藥 · 柳柳産業등. 이들 업체들이 研究所를 設立하면 中央研究所나 綜合研究所를 보유한 제약업체수는 20社를 넘게 된다.

이같이 製藥業體들이 研究所設立을 추진하는 것은 物質特許가 도입되면 新藥개발능력이 없는 製藥會社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또 제약경기가 둔화되면서 新製品開發能力이 큰 회사가 부상한 것도 주요 원인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研究要員에 대한 스카우트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현재 科學技術處에는 東亞製藥 · 柳韓洋行 · 鍾根堂 · 綠十字 · 同和藥品 · 永進藥品 · 중외제약 · 三進製藥 등의 研究所가 등록돼 있다.

無料수입건수 每年늘어

大韓辨理士會統計서 밝혀져

大韓辨理士會가 지난 78年 6月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생활보호자 無料수입건수가 85年은 84年의 12件보다 6件이 많은 18件으로 나타났다.

大韓辨理士會가 최근 집계한 85年 無料수입건수 統計에 따르면 함봉달씨의 實用新案 「구두 뒷굽장치」등 18件으로 特許2件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實用新案이다.

科技院 遺傳工學센터 독립附設센터로 승격

韓國科學技術院遺傳工學센터(소장 韓文熙)가 지난 1日字로 독립된 부설 遺傳工學센터로 승격되어 遺傳工學에 대한 研究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月 國內 遺傳工學研究의 개발기반을 마련키 위해 設立됐던 遺傳工學센터는 1日 設立 1週年을 맞아 附設遺傳工學센터로 독립 확대된 것이다.

<☞>